

# 대구주보

부활 제4주일  
성소주일 · 이민의 날

2010. 4. 25. (다해) | 제1672호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  
(2코린 2,3)



## 오늘의미사

### 입당송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13,14,43-52

### 화답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제2독서** 묵시 7,9,14ㄴ-17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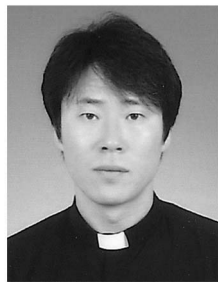
**복음** 요한 10,27-30

###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주일의 말씀

## 섬김의 길이 성소의 길



임종필 프란치스코 신부  
성소 및 신학생복음화 담당

농사를 지으며 염소도 키우시던 어떤 분이 어느 날 흑염소의 우리를 청소하고 있는데, 흑염소 한 놈이 자기를 뵈히 쳐다보더라 합니다. 그 놈의 눈이 참 맑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도 그놈의 눈을 한참 동안 마주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놈의 염소들을 기르고 있는가, 아니면 이놈들이 나를 머슴으로 부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가 이 놈들을 기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먹을 것을 갖다 바치고 염소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고 있으니 달리 생각하면 난 완전히 이놈들의 머슴인 거야, 머슴...’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며, 성소 주일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이 날을 성소 주일로 제정하여 우리 각자가 받은 부르심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해 보고 그 부르심에 더욱 잘 응답할 것을 결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직자나 수도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의 가르침 안에서 충실하게 그분을 따라 살고자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소, 즉 부르심을 사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는 섬김입니다. 성소를 사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마태 20, 28)’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를 위한 전적인 내어

쭈름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였고,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과 같이 봉사의 길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비천한 인간이 되어 오신 강생의 신비를 생각할 때 이보다 더한 낮추임과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부수어지고 쪼개어져서 우리에게 먹히는 빵으로 온전히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몸은 못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철저한 낮추임과 겸손,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는 사랑, 이 모두는 바로 섬김, 참다운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느님께서서는 너무나 명백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한경쟁으로 치닫으며 성공과 출세가 곧 행복이라는 도식으로 비취진 이 시대에 뒤쳐져 숨죽여 고통 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소를 살아가는 우리 하느님의 백성들은 아파하는 많은 살아있는 생명들을 보듬는 마음을 일깨워 그들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외된 이들을 보듬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보살필 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성소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응답에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성소 주일에 새겨봅시다. 

생명의 말씀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요한 10, 28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제47차 성소주일 담화문(요약)

## 성소를 일깨우는 증언



착한 목자 주일에 거행하는 제47차 성소주일을 맞아, 이 사제의 해에 가장 알맞은 주제인 ‘성소를 일깨우는 증언’에 대하여 여러분이 묵상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직무 사제직과 봉헌 생활에 헌신해 온 이들의 깊이 있고 훌륭한 개인적 공동체적 증언은 성소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삶으로 증언하도록 부름 받았고,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과 소외된 이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온 인류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말한 동생 안드레아의 증언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초대를 받아들인 모든 이에게는 자기 자신의 증언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효과적인 사제 증언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사제 생활의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맺는 친교입니다. 사제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하느님께 속해 있으면서 다른 이들이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사제는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맺어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언제나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마련입니다. 기도는 성소를 일깨우는 으뜸가는 증언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완전한 봉헌입니다. 수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기꺼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소 이야기

는 거의 전부가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형제자매에게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는 삶을 사는 사제의 증언과 관련됩니다.

세 번째 측면은 친교의 삶입니다. 특별히 사제는 친교를 이루는 사람으로, 모든 이에게 열려 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양 떼를 하나로 모아 분열을 극복하고 균열을 치유하며 갈등과 오해를 풀고 죄를 용서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외롭고 우울한 사제들을 보고 그들을 모범으로 삼겠다는 용기를 낼 젊은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사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드러내는 친교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사제들의 생활 모습, 사제들이 하느님의 양 떼에게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모습, 희망과 부활의 기쁨에 넘쳐 십자가를 자유롭게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을 증언하는 모습, 사제들이 형제로서 일치를 이루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찬 모습 등은 성소자들이 증가하도록 하는 데 으뜸가는, 가장 설득력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한 번 자신의 소명을 묵상하고, 소박함과 신뢰와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그 성소에 충실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티칸에서  
2009년 11월 13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 성모당이 궁금해요. 2

교구 사목국

### 성모당에 얽힌 사연들 궁금하시죠?

**성**모당에는 이런 재미난 사연이 있습니다.

첫째, 성모당의 성모님께서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초대교구장인 드망즈 주교님은 교구의 주보성인으로 루르드 성모님을 모시면서 성모님에게 교구의 재정 관리를 맡아주시기를 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성모당의 성모님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교구의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주교님과 재정을 담당하는 관리국장 신부가 있는 교구청 본관 건물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하하.

둘째, 성 요셉이시여, 물이 필요합니다!!!

성모당이 들어설 땅 옆에 1913년 초 주교관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건축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는데 도무지 물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드망즈 주교님은 요셉 성인에게 도움을 청하셨답니다. 그러자 1913년 4월 13일에 성모당 바로 옆에서 샘이 터졌는데 팔뚝보다 더 굵은 물줄기가 흘러나왔는지 뭐니까!(지금 본관 1층 오른쪽 지하에 우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물로 주교관과 유스티노 신학교를 건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루르

드 성지에서는 영적수가 흘러나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사를 베풀고 있고, 대구의 성모당에서는 샘이 터져 나와 교구의 반석을 튼튼히 놓게 되었습니다. 대구교구를 사랑하시는 성모님의 놀라운 섭리라 할 수 있겠죠.

셋째, 성모님, 낮게 해 주세요!!!

주교와 성당을 증축할 때 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16년 말 소세(Saucet)신부님이 중병을 앓아 임종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드망즈 주교님과 수녀님들 그리고 학교의 어린 소녀들이 함께 루르드의 성모님께 9일 기도를 바쳤답니다. 기도를 바치면서 만일 소세 신부를 낮게 해 주시면 주교와 성당의 증축 공사 전이라도 먼저 루르드의 성모당을 만들어 봉헌하겠다고 다시 약속하셨다고 합니다.(11월 14일) 그런데 놀랍게도 9일 기도 마지막 날에 소세신부님의 병이 낮게 되었답니다. 이에 주교님은 성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917년 7월 31일 루르드 동굴 공사를 위한 정리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픈 이들과 교회의 사제를 생각하는 어머니 성모님의 깊고 넓은 사랑이 우리 교구 성모당에 한 아름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올 어머니! 우리 위로자시여, 고귀하온 동정녀여 우리 보호하소서. 동정 성모마리아, 당신 사랑 주소서. 모든 근심 슬픔에서 우리 구하옵소서.” (다음 주보에 계속...)

### 헛갈리지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 영성의 향기

### :: 성령의 일들

예수님과와의 만남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으므로 자주 세상의 방법으로 하느님을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며 어떻게 하면 감추어진 것들을 볼 줄 아는 신앙의 눈이 떠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 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느님 중 한 위이신 성령께서는 2000년 전 실제로 이세상에서 살다 승천하신 육체를 지니셨던 예수를 승천 뒤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현존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기에 성령의 궁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던 날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보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며 아버지와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시어 함께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 권 가타리나 수녀 -

## 짧은 글 - 깊은 생각

### 깨진 꽃병



어느 작은 마을에 조그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마을에서 태어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70년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의 결혼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노부부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노부부가 한 번도 큰소리치면서 싸우는 것을 본 일도, 술자리나 빨래터에서 부부가 서로를 헐뜯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노부부의 얼굴에선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열심히 밭을 갈아 아이들을 훌륭하게 성장시켰습니다. 잔

치가 열리던 날 노부부의 집 조그만 앞마당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노부부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거실 탁자위에 놓인 깨진 꽃병은 잔칫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보기 흉한 것이었습니다. 몇몇 아낙들이 그것을 치우려 했지만 할머니는 한사코 그 자리에 놔둘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윽고 노부부가 손을 꼭 붙잡고 손님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박수 속에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단치도 않은 일로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남편과 내가 결혼한 지 벌써 50년이나 되었군요. 그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남편과 제가 이때까지 아무 탈 없이 결혼생활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탁자위의 깨진 꽃병입니다. 어려움에 빠져 괴로울 때 저 꽃병이 나를 지켜주었지요. 51년 전 늙은 청년이었던 남편은 제 방에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지요. 감격한 나머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그만 탁자 위의 꽃병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깨진 꽃병은 그 날의 내가 느낀 감격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늘 되새기기 위해 꽃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었지요.” 할머니가 말을 마치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탁자 위로 모아졌습니다. 깨진 꽃병은 빛을 받아 너무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 율려온 글입니다. -





## ■ 교구설정 100주년 준비위원회

### 교구설정 100주년 추진본부

전광진 엘마노 신부 / 교구 사목기획 실장

#### 1. 의의

교구에서는 지난 2월 그동안 활동해온 교구설정 100주년 준비위원회와 별도로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본부 TFT를 출범하였습니다. 100주년 추진본부는 1년 앞으로 다가온 교구설정 100주년 기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 구성

1) **본부:** 본부는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총괄하며 본부장은 하성호신부, 사무국장은 전광진신부, 사무차장은 추성훈신부,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기획 위원들이 있습니다.

2) **홍보분과:** 분과장은 허인신부이고 100주년 관련 인터넷관리, 보도자료, 영상 및 사진 기록, 현수막, 포스터, 차량용 스티커 등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영성분과:** 분과장은 김영호신부이고 본당별 성모당 릴레이순례미사, 성경 한줄 쓰기·한 끼 100원 봉헌·가까운 거리 걷기 등 하루 3가지를 실천하는 1·3 운동, 교구역사를 묵상하는 성시간 영상자료, 교구 역사를 100가지 테마로 드리는 100일 기도, 도보성지순례 운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재정분과:** 분과장은 장영일신부이고 모금관련 업무 및 전반적인 재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 **생명사랑나눔분과:** 분과장은 장효원신부이고 생명사랑나눔 운동을 추진하며 특히 헌옷과 중고컴퓨터를 모아 해외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53-9991)

6) **시노드분과:** 분과장은 임석환신부이고 제2차 교구 시노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는 토론마당을 토대로 의안작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 **대성당분과:** 분과장은 최경환신부이고 100주년 성당건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성당 설계를 공모하고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 **100년사분과:** 분과장은 김태형신부이고 100년사 편

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동안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집필하고 출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3. 100주년 행사계획

##### 1) 100주년 기념 감사미사

2011년 5월 15일(일) 대구시민운동장 축구장에서 교구 전신자가 참여하는 100주년 기념 감사미사를 봉헌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찬양과 기도, 100주년 영상물상영, 찬양공연, 감사미사 및 시노드 폐막미사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헌혈 및 장기기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2) 100주년 축제

5월 8일(일)부터 15일(일)까지 100주년 축제기간을 가집니다. 축제기간에는 100주년 사진 및 미술전시회, 청소년 행사, 청년뮤지컬, 학술심포지움, 대바자회, 해외초청손님 리셉션 및 자매교구행사, 다문화축제, 음악회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구설립 당시 큰 기여를 하신 서상돈 아우구스티노 회장님(1850-1913)의 흉상을 제작하여 모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 3) 해외초청대상

해외 초청대상으로는 우리교구와 자매결연교구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교구, 대만 대중교구, 그리고 우리교구와 협력교구인 볼리비아 산타크루즈교구, 중앙아프리카 방기교구, 그리고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및 빠리외방전교회, 오스트리아 부인회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00주년 추진본부에서는 언제나 좋은 의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 250-3100)

100주년이 우리 교구민 모두가 더욱 단합하고 복음화에 매진하는 은총의 시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시노드 마당

### “새 시대 선교”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 교구 시노드 사무국장

우리교구의 천주교 선교 현황을 보면, 80년대에서는 신자 증가율은 5% 이상이었고 많을 때에는 7~8%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0년 후반기부터 2000년까지는 신자증가율이 3%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2%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영세자의 증가율이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신영세자들이 생기지만 미사참여자 수는 같습니다. 그것은 세례성사를 받는 사람만큼 냉담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전체 신자의 1/3이 미사에 참석하였지만 지금은 1/4정도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관공성사와 고해성사자들 또한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영성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세례와 종교교육을 시켜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지만 지금 부모님들은 자녀가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지 않고 있고, 가족들에게도 선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방법을 몰라서” 또는 “선교 자격이 없어서”라고 말하면서 이웃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과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학과 문명이 발전 할수록 오히려 사이비 종교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교는 웰빙 시대를 맞아 ‘차(茶)와 사찰음식’,

‘템플 스테이’ 등으로 포교활동을 함으로써 신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람들의 가치관 이동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선교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현대의 복음 선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상황은 우리에게 복음화 방법을 개선하여 우리가 현대인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전력을 다하여 연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역설합니다. 우리는 우리 동시대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선교 방식을 제시하고 연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기존의 방식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고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표현을 연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화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화를 위해 존재합니다. 광범위하고 깊은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복음화의 임무와 사명은 한층 더 절실합니다. 복음화는 참으로 교회의 고유한 은총이고 소명이며, 교회의 가장 깊은 본성입니다.”라고 교서는 말합니다. 복음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선포의 임무와 사명을 깨닫도록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들이 선교의 열정과 애정을 가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목자의 관심입니다. 사목자의 관심과 열의에 따라 예비신자의 증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보에 계속...)

## ★ 모임 · 행사 ★

## 폐제기도회

- 일시: 5.8(토) 20:00, 장소: 삼덕 젊은이성당
- 4대리구 교구설립 100주년 기념 도보 성지순례**
- 일시: 5.3(월) 11:00, 장소: 진목정
- 미사집전: 조환길 타대오 주교
- 문의: 054-751-1571 / 010-9584-0996

※도보 성지순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0 성령쇄신 춘계 대구 대회

- 일시: 5.22(토) 10:00~18:00
-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 강사: 표중관 신부, 김선호 형제
- 문의: 551-9111

## 제10회 한국가톨릭 젊은이 성령축제

- 일시: 5.30(일) 9:00~17:00
-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 문의: 010-3808-1179 / 017-812-8150

## ★ 성소 모임 ★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 일시: 매달 첫째 일 14:00
- 장소: 대구 이곡동 수녀원
- 문의: 587-2898 / 016-570-0939
- 성소상담문의 언제나가능(<http://www.fmmkor.org>)

## 사랑의 선교 수사회 성소모임

- 일시: 매주 일 15:00, 장소: 서울 삼선동 본원
- 문의: 02-3216-2431

club.cyworld.com/mc-brothers

##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일시: 매월 첫째 일 11:00~16:00
- 장소: 서울 돈암동 성골롬반 선교센터 2층
-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젊은 남성
- 문의: 양창우 신부 010-6818-3737

##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일시: 5.2(일) 11:00, 장소: 서울 본부
- 문의: 010-4555-7526(kmsvocation@daum.net)

## ★ 피정 ★

| 미 사                  | 일 시              | 장 소  |
|----------------------|------------------|------|
| 구미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 4월 26일(월) 오전 11시 | 도량성당 |
|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4월 26일(월) 오전 11시 | 죽도성당 |

## 바노의 성모 기도회 15주년 춘계 대피정

- 일시: 4.29(목) 09:00~16:00, 장소: 삼덕성당
- 강사: 남양성지 이상각(F.하비에르)
- 문의: 삼덕성당 임마콜라파의 집 427-7543
- 포콜라레 피정 '히루마리아폴리'**
- 일시: 5.16(일) 13:30~18:00
-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중강당
- 회비: 어른 5천원 초·중·고·유아 3천원
- 문의: 651-2739 / 523-4822

## 부부를 위한 1박2일 특별피정

- 일정: 3차 5.8(토)18:00~9(일)16:00
- 장소: 정하상교육회관 010-9558-7112
- 주제: 부부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 ★ 교육 · 모집 ★

## 관덕정 5월 영여성경공부반 모집

- 개강: 5.4(화) 10:00~12:00 화, 목 강의
- 과장: Romans 및 Numbers
- 문의: 254-0151 / 010-2578-5535(회비:2만원)

## 대학생 해외봉사&amp;학력연수 단체출국모집

- 일정: 1차-6.24(목)-8.20(금)8주, ~9.17(금)12주  
2차-8.29(일)-10.25(월)8주, ~11.22(월)12주
- 지역/대상: 필리핀, 캐나다, 호주/대학생(연계연수가능)
- 문의: 대구광역시청소녀수련원 593-1273

## 몽골 선교지 방문단 모집

- 기간: 8.9(월)~12(목)
- 문의: 몽골선교후원회 042-256-4111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 요양보호사1급 교육과정 개강안내**
- 교육기간: 5.10(월)~7.30(금) 총240시간  
(월, 수 주2회반 / 월-금 오전반)

- 접수기간: 4.19(월)~5.4(화) 선착순 접수
- 장소: 교구청 교육원가동3층(255-7222)

## 선교훈련 시그마 코스 14기

- 일시: 6.11(금)~13(일), 회비: 16만원
- 장소: 충북 청원 엠마우스 피정의 집
- 대상: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교우(개인 또는 단체)
- 문의: 미래사목연구소 031-985-2808

## 2010 가톨릭 교육자 대회

- 일시: 5.16(일) 09:00~17:00
- 장소: 서강대학교
- 주제: 교육의 길을 묻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 주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 문의: 02-460-7626

## 정홍규신부님의 영성테라피(5회기)

- 일시: 5.29(토) 10:00~12:00
- 초동부 음악영상, 미술 테라피(12회기)
- 일시: 5.8(토)
- 장소: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연구소
- 문의: 794-6022 / 010-3513-2225

## ★ 직원 채용 ★

## 교구청 청소년담당 여직원(주보·기획담당) 모집

- 자격: Mac PC 활용 가능한 자
- 교리교사 활동 경력(3년 이상)
- 제출서류: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 마감: 4.28(수)
- 문의: 사목국 청소년담당 250-3066

## 한티피정의집 주방 직원 모집

- 자격: 신체 건강한 여성(조리가능자 우대)
- 문의: 054-975-5151 / 011-9568-1388

## (북) 데레사소비센터 직원모집(765-1500)

- 모집분야: 영업·관리직(0명), 계산원(0명)
-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용

## ★ 안내 ★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 문의: 02-764-47413(<http://www.성가정입양원.com>)

##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김승호(마르티노), 김영화(아네스)

일시: 5.9(일)까지, 장소: 교구 법원

## 교구청 휴무

• 5.1(토) 근로자의 날 관계로 쉽니다.

|                                                                                                                                |                                                                                                                                                                                      |                                                                                                                                                              |                                                                                                                                       |
|--------------------------------------------------------------------------------------------------------------------------------|--------------------------------------------------------------------------------------------------------------------------------------------------------------------------------------|--------------------------------------------------------------------------------------------------------------------------------------------------------------|---------------------------------------------------------------------------------------------------------------------------------------|
| <b>퐁 천제명 홍삼</b><br>홍삼톤 F60포 (1+1)행사<br>홍삼순액, 절편, 홍삼농축액, 어린이홍삼<br><b>30%~10%</b><br>이옥이(살비아) 053-793-5325                       | <b>카리타스 요양센터</b><br>Caritas LONG TERM CARE CENTER<br>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br><b>1577-9913 / 636-5567</b><br>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요양보호사교육원<br>053)255-7222 교구청(성모당)내 교육원 가동3층                      | 라식, 백내장수술 전문안과<br><b>대구 연세 안과</b><br>iFS아이리식, 백내장, 노안수술<br>의 학 박 사<br>현, 연세대외래교수 원장 박 중 원 (소시무)<br>(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출구)<br>상담전화 626-8881~5                   | <b>긍정에너지</b> 가 넘치는<br><b>생인행복을 심는 치과병원</b><br>상인 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br>롯데메이아 건물 5층<br><b>T.633-7504/634-7504</b><br>원장: 강원일(안드레아), 권광, 구선주  |
| <b>오월의 정원</b><br>하우스테이션<br>세상에 하나뿐인 로맨틱드라마<br>결혼 · 돌 · 회갑 · 기업행사<br>중구 문화동 대구시센터(구, 밀리오레)<br>예약문의 664-7000<br>www.maygarden.kr | <b>데레사소비센터</b><br>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br>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br>*청과, 야채, 선어, 정육<br>*신선, 가공식품, 공산품, 생필품<br>*생활,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가전<br><b>765-1500 (어린이화관맞은편)</b><br>대표이사 장영 일 (그라산도)신부 | <b>이시우 신경외과</b><br><a href="http://척추외과">http://척추외과</a><br>척추 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 수술.<br>(척추수술 5,000례 시술)<br>내당역 3번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br><b>T.652-0119 / 이시우(요한)</b> | ●신속하고 간편한 대출<br>- 아파트담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br>●높은 수익과 안전한 예금<br><b>유니온 저축은행</b><br>(www.kusb.co.kr)<br>TEL : 256-1122<br>대표이사 박판희(안토니오) |